

노동교육의 특징

- 성인교육의 관점에서

이 현 경(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노동사회연구 2호(95.7)』에서 노동교육의 진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노력의 일환으로 노동교육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교육방법론과 기술」이란 글을 통해 다양한 교육방법론을 소개한 바 있다. 교육실에서는 참여형 교육의 확산을 위해 그 때 소개한 내용 가운데 ‘찬반토론’이나 ‘경쟁식 토론’, ‘그룹토론’을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우리의 노동교육은 다양한 토론식 교육방법을 발전시킬 때 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의 맥락에서 <성인교육 학습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성인교육론>은 직업교육이나 일반 시민교양교육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연구소의 입장에서 <성인교육론>을 <노동교육>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여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노동교육’이 청소년이 아닌 사회에 진출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며, 자발적인 목표의식과 필요에 입각한 교육이란 점에서 성인교육과 관련되는 지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 <성인교육론>은 그런 성인교육을 이해하는 가운데 성인노동자를 교육의 주제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하고 있어서, ‘노동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셋만 모이면 나의 스승이 있다.”는 옛말처럼, 어떤 견해에서라도 장점을 찾아 배워간다면, 우리의 ‘노동교육’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임을 믿는다.

이번 호에 소개할 내용은 ILO에서 출간한 「Workers' Education and its Techniques(1983년 재판)」의 제9장 <Adult And The Learning Process>을 번역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성인의 교육(이하의 글에서는 ‘학습’이라고 함)과정의 특징을 통해 바람직한 교수방법론과 교

육 활동기의 활동원칙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노동교육 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을 점검해 보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 성인 교육과 학습과정

앞으로 노동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기술들에 관해 논의하면서 다른 교육 방식이나 도구들을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더욱이 노동교육은 '자주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자뿐 아니라 학습자들도 무엇을 하게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학습과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초기에 교육 연구자들은 주로 아동 교육에 관심을 가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그룹 다이내믹스 분야에서 성인쪽으로 상당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 결과, 단지 교육 분야에서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 의미있는 조망이 가능해졌고, 우리는 이 지침에서도 그 내용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노동교육 활동가들은 이런 내용에 극단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되지만,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그룹 다이내믹스 이론의 요점을 활용해 학습자들의 유용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성인은 학습할 수 있는가?

다행스럽게도 위의 질문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보다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흔히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여, 무언가를 배우기엔 너무 늙었다고 느끼는 많은 노동자들을 기죽게 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이런 분야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 있었는데, 그들은 25세가 지나면 1년에 1% 정도씩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다만 학습 속도가 떨어지는 것일 뿐, 학습 능력 자체가 감소되는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몇 가지 시험에서는 40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남녀들은 보다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 학습해냈다. 그런데 시간을 제한하

고 수행된 다섯 번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한 그룹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수는 낮아졌지만, 그럴 경우에도 학습을 지속해온 나이 든 사람들은 실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학습 능력은 나이에 따라 줄어들지 않으며,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는 속도가 약간 더더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노동자들이 학습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상한 교사가 그들을 격려함으로써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는 한, 그들의 자신감 부족은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밖에 시력이나 청력과 같은 신체적인 변화도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훌륭한 교사는 이런 어려움을 잘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확실히 하거나 시청각 보조물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노동자들 속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성인교육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한다.

학습 능력에서 성인과 학생들을 비교한다면, 결코 학생들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그들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학생들에게는 의식적이고 뚜렷한 목표는 없다. 학생들은 가야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 간다. 아마도 국민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일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들이 공부하는 것이 일상생활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에 학습을 잘하는 노동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하는 것의 가치가 그의 일상 생활 - 가정, 직장, 노조, 지역, 정부 등 - 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정보를 얻었다는 점보다는 그가 학습에 참여했다는 것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자질을 개선할 기회를 얻고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기꺼워 한다. 이런 이유로 성인 학습자는 교육 과정에서나 그 후어나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림 1> 정보의 수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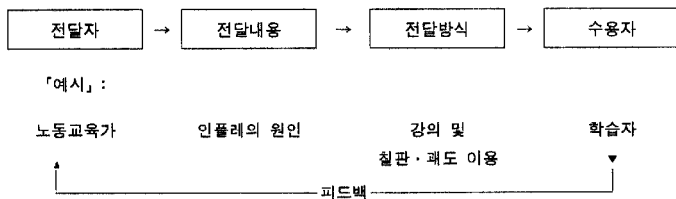
권투에서는 “눈 하나가 귀 두개 뚫을 한다.”는 말이 있다.
 가르치는 데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눈 하나는 귀 여섯개 뚫을 한다.”

3. 학습 : 정보의 내면화 과정

학습을 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두 가지의 기본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첫째는 학습자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이나 정보가 수용되는 과정이다. 둘째는 그런 정보나 개념들이 소화, 즉, 내면화되어서 그의 정신구조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이는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이 재조정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첫째 과정은 두번째 과정이 없이 단지 피상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활된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1>는 성인들이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다. 표에 나타난 비율은 어쩔 수 없이 개략적인 것이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의 평균수치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연구들은 거의 같은 결론을 제기하고 있는 바, 우리의 시각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청각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대략 6배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미각, 촉각, 후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은 통틀어서 대략 청각 만큼의 비중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교육에서조차도 정식 교사들이 대부분의 교육 매개방법으로 강의를 택하며, 시각적인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습자들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눈으로 다른 사물들을 - 예컨대 앞사람에게 내려앉은 파리나 창밖에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 등 - 보기 때문에 더욱 산만하게 된다. 훌륭한 노동교육 활동가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적당한 시청각 보조자료를 선택해서 산만해지기 쉬운 학습자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는 것이다.

<그림 2> 커뮤니케이션 과정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또한 인간의 정보 수용방식에 대해서도 밝혀 왔다. 커뮤니케이션이론가들은 특히 정보전달자나 교사들이 자신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수용되리라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들은 그런 과정을 <그림 2>에서와 같이 설명해 왔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네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전달자와, 그들이 보내는 정보인 메시지와, 그들이 선택하는 매개체로서의 전달방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인 수용자이다.

<그림 2>의 내용을 예로 들면, 전달자는 인플레이션에 관해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앞의 <그림 1>에서 본 것처럼 그는 전달 방식으로서 말(강의)만이 아니라 칠판이나 차트와 같은 시각 자료들도 쓸 것이다. 이런 두세 가지의 전달 수단을 써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표에서처럼 그렇게 쉽

지는 않다.

돌맹이가 그다지 크거나 무겁지 않을 때, 돌맹이를 한 바구니에서 다른 바구니로 옮기는 것은 쉽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한 사람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옮기는 것은, 그것이 아주 작은 개념일 때조차도 돌맹이를 옮기는 것보다 어렵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나무'의 개념을 (을)이라는 수용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자. (갑)이 인쇄된 낱말 "나무"를 여러 수단을 통해 전달할 때, (을)은 (갑)의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게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갑)이 그려보는 나무는 50피트나 되는 커다란 삼나무이다. 그러나 (을)도 똑같이 생각할까? 혹시 (을)은 야자나무나 사과나무, 전나무를 그리고 있는지 않을까?

우리가 말하려는 요점은, 수용자인 (을)은 (갑)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모종의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관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노동교육 활동가의 예로 돌아가 보자. 그의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지만, 학생들은 이미 임금, 이윤, 가격, 정부정책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전달자는 자신이 말할 때 마음 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거나 시청각 자료를 보고 있는 학습자들의 마음 속에 그려지는 것과 같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들이 서로 인식하는 바가 같다고, 자신과 같은 "나무"를 생각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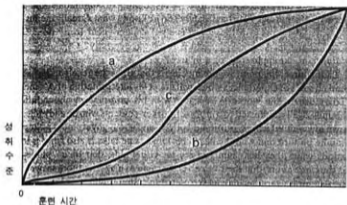
전달의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해야 하며,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검토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하며, 훌륭한 교사는 피드백에 기초해서 한번더 보충설명을 할 것인지, 그림을 더 보여줄 것인지, 다음 논점으로 넘어갈 것인지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다음 장에 가면 강의라는 교육형식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강의 방식의 교육형식은 일방적인 전달을 의미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수용되지 않거나 왜곡되어서 수용되기 마련이다.

4. 학습, 내면화, 망각의 비율

노동교육 활동가만이 아니라 노동자 학습자들도 학습과정에서 학습의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완전한 학습과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같은 사람이라도 주제에 따라, 또는 때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그림 3> 학습 속도



<그림 3>은 학습물에서 세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음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수평축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길이를 표시한 것이므로, 그래프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습자의 학습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축은 학생들에 의해 획득된 성취수준을 나타내므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학습자의 학습주제에 대한 인지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게 된다면 그래프 상에서 그의 위치는 0에 놓이게 된다. 그가 학습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그래프 상 위치는 오른쪽으로 올라갈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학습 주제에 대한 인식 능력이 향상되어 그래프의 위쪽으로 이동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학습물의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보면, 목대기의 곡선 a는 학습을 시작하자마자 매우 빠른 속도로 지식이 증가하다가, 그후부터는 완만하게 변하면서 좀처럼 향상되지 않는 학생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는 학습하는 주제에 처음에는 아주 쉽게 이해할 만한 사실이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더욱 복잡한 주제들이 다뤄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학습 초반에는 대단히 열정적으로 새로운 주제에 접근하지만 이내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학습물이라 할 수 있다.

곡선 b는 전혀 다른 학습물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을 나타낸다. 이들은 처음에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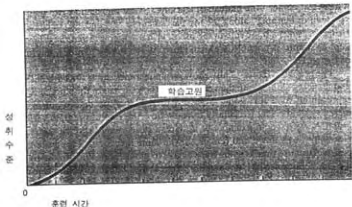
주 느리게 시작하지만, 요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a의 학생들을 따라잡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느리지만 꼼꼼한” 타입의 학생들에게 나타나며, 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주제에서 개념들을 적절히 포착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곡선 c는 가장 일반적인 학습률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느리게 진보하다가 급속한 향상기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다시 어려워지고, 거의 진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독자 자신의 학습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 a, b, c 유형의 학생들 중 어느 한 경우로 생각하게 되겠지만, 때로는 c의 경우처럼 잘 진전이 되지 않아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기분을 느낄 것이다. 새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이 단계가 얼마나 보편적인가를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이 단계는 심리학자들이 “학습고원 : 학습의 침체기”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일반적인 것인데, 이는 C곡선의 꼭대기나 A곡선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따로 <그림 4>에서 보도록 한다.

<그림 4> 학습 고원 : 학습의 침체기

A. 학습 고원



B. 지속적인 학습 고원



<그림 4>에서도 수평축은 훈련 시간을, 수직축은 성취수준을 나타내는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에서의 진척 정도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 A는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수준의 인식능력에서 점차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향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의 학습 곡선은 고원, 즉 침체 효과를 갖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마치 걸림돌이라도 만난 것처럼 갑자기 침체에 들어서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런 경우 많은 학생들은 학습이 자신에게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침체기에서 몇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학습을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만약에 교사들이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을 심어주어 학습자들이 지속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게 되며 실망감이나 그로 인한 노력의 낭비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A곡선을 끝냈으면 학생들은 다시 빠른 진보를 보이기 시작하므로, 이런 낙관적인 판단이 옳았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발전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또다른 지면이나 침체가 뒤따라 온다. 다시 말하면 <그림 4>의 B에서처럼 학습과정에서 일련의 고정기와 상승기를 거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알수록, 좌절감을 극복하기는 더 쉽다. 실제로 그런 지면과정은 모든 개인 및 정보를 내면화하고 소화하는데 필요하다. 학습과정은 잠재의식적인 과정이며, 급하게 먹은 밥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부분적인 지식이 점차 한 사람의 정신적인 구조의 부분이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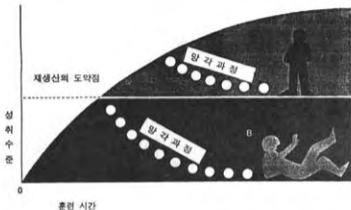
이로써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말한 바 있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다른 개념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학습 재생산의 도약점(the threshold of reproduction)>이란 개념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새로운 사실이나 개념 등을 우리의 기존의 지식형태에 맞추기 위해 집중해야만 한다. 새로운 사고를 기존의 지식에 비추어 검증하고, 기존의 지식이 조정되거나 확장될 필요를 느끼기도 한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새로운 패턴은 아주 확고하게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지식이 우리의 용어나 경험의 일부분으로 재생산된다. 이것은 용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배우고 반복하는 기계적인 재생산과는 다른 것이다.

특정한 한 주제를 학습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식을 우리 자신의 용어로 재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재생산의 도약점>을 넘어섰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그림 5>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5> 재생산의 도약점과 심화학습



<그림 6> 도약점과 망각 과정



<재생산의 도약점>은 인식 능력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림 5>에서 학생 (가)와 (나)는 둘다 재생산의 도약점에 도달하였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획득한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용어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가)는 이 도약점을 통과한 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학습한 것에 대해 토론하고, 실험해 보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학습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했다. 그러나 학습자 (나)는 도약점에 도달한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학습을 강화시키거나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더이상의 실제 연습을 하지 않았다.

<그림 6>에서는 망각과정이 두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 있다. 학생 (나)는 학습의 극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견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자마자 재생산의 결절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반면에 학생 (가)는 학습의 극대화 연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견고히 함으로써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지 않았고, 도약점 위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학습자가 오로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시험보는 당일날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재생산의 도약점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교육은 학습자들이 시험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그들의 일부

로 만들어서 유용한 사회적 활동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학습의 도약점 위에 올라서 이를 소화하고, 내면화하고, 견고화해야 한다. 또 학습자나 교사나 다 같이 노동자 교육의 뉘 수 없는 부분은 토론, 제검토 활동,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 검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연습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물론 학교교실에서 행해지는 초점이 불분명한 반복연습과는 다르다. 노동자들은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서 그룹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사회적 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5. 정보와 개념의 보유 과정

앞서 우리는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을 통해서 얻으며, 청각은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 고 말할 바 있다. 정보를 내면화하고 보유하는데 있어서도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며, 이에 관해 깊이 있게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다.

<그림 7>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의 보유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거칠게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는 등 청각만을 통해서 습득한 것은 거의 영원히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을 보거나 그림을 보는 등, 시각만을 통해서 배운 것은 약간 더 기억을 유지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하여 습득하면, 학습의 영구성은 좀더 유지된다. 이런 세 가지의 학습 방법은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수동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는 습득한 정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즉, 더 이상의 심화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보강할 수 없다.

능동적인 학습방법을 통해 배운 것을 견고히 하면 우리는 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망각을 덜 하게 된다. 즉, 단지 습득한 정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보다 확고하게 그 내용을 심어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토론을 함으로써 요점들이 명료해 지고 차이점들을 수정하며, 다른 각도에서 주제를 제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7>의 5에서 보듯이 학습이 시각과 청각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잘 짜여진 토론과 실천활동, 연습 등과 결합하게 된다면 망각은 훨씬 덜 일어나게 된다. 비록 어느 정도는 누구나 망각이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정보를 가장 잘 획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기억과 학습 방식

1. 청각만 사용시



2. 시각만 사용시



3. 청각+시각 사용시



4. 시각+청각+토론 사용시



5. 시각+청각+토론+재생산+실제 활동시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어떤 그림에게 노조 회계감사의 임무와 활동에 대해 학습을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어떤 그룹에게 노조 회계감사의 임무와 활동에 대해 학습을 시키려고 할 때, 강사는 회계감사의 일반 활동에 대한 개요를 말(강의)로 소개하는 대신에, 한 팀을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학생들 스스로가 회계감사의 주요한 임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해본다면, 한 소그룹에는 이런 토론 주제를 주고, 다른 소그룹에는 노조 재정과 관련해서 흔히 발생하는 난점이 어떤 것인지를 토론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학생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문제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 이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강사는 보고되는 회계년도에 오차나 틀린 내용의 기입, 또는 반절만 타당한 내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면에서 회계의 임무와 어려운 점에 대해 요약적인 짧은 강의를 성공적으로 해 줄 수가 있다. 또한 강사는 의지만 있다면, 패드, 영수증 및 부분, 수입장부나 지출장부 등 시정각 소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다. 강사의 강의 뒤에는 반드시 질문이 뒤따라야 하며, 심화 토론이 있어서 교육을 받는 팀이 능동적인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의 폭을 넓히게 된다는 것이며, 노조 활동에 보다 유용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지방정부의 활동 방식에 대해 어떤 그룹을 학습시키고자 한다면 소그룹 토론 및 짧은 강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실제 정부기관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학습과정의 이런 단계에서 우리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바람직한 사회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교사성어 중에 “들으면 잊고, 보면 기억하고, 행하면 안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실제 활동과 교육을 연관시키는 교육방법은 전통적인 교수법을 지닌 강사들에게는 낯설고 비윤리적이라는 느낌마저도 들 것이다. 낡은 교실에서 금방 써먹을 수 없는 어떤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면 그렇다. 그들이 노동교육 분야의 책임자이거나 강사가 아닌 한 이런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관원이 있다면 설득해야만 한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당사자는 노조단체의 교육 담당자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노동자 학습자 자신이 그런 설득을 해야한다. 최후의 수단은 수업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다. 교육과 관련해서 오히려 낯설게 여겨지는 실제적인 활동방식을 발견해 낼 줄 아는 강사야말로 성인들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기회들로부터 핵심을 포착하는 사람들이다.

<표 1> 경험의 사다리

경험의 단계	관련 감각기관	교육 매체	비 고
직접적 경험	모든 감각	8. 목적의식적 경험: 노조 및 시민자치활동 참여	실제 생활에의 참여
	모든 감각	7. 실제 생활의 목적의식적 관찰: 현장실습, 방문조사 등	실제 생활에 대한 관찰
	모든 감각	6. 실제처럼 꾸며진 가상 경험: 역할극, 시범, 정형화된 경험에의 참여	가상 현실에 대한 참여
	거의 모든 감각	5. 수동적으로 극화된 경험: 역할극, 연구모델, 시범 등의 관찰	가상적이고 참여없는 관찰 중심(약간의 개입 가능)
보다 보다 직접 강한 자극 경험	시각 및 다른 감각	4. 수동적이고 고정된 실제 경험: 고정된 모델, 전시물 등에 대한 개별적 관찰	실제 생활. 그러나 관찰만 가능
	시각 및 청각 시각 및 청각	3. 수동적인 탐색: 텔레비전 영화	“편집된 현실” -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 - 과거의 실제 혹은 가상의 사건들
	청각		
	청각	라디오	- 과거의 실제 사건(편집된)
	시각	레코드	- 과거의 실제 장면(편집된)
추상적	시각	2. 시각적 교재: 지도, 도표, 차트, 칠판, 그래프, 형견칩판	현실을 대신한 시각적 상징물. 대개 고정적인
	청각 시각	1. 언어 - 강의 등 - 책, 복사물 등	현실을 추상적으로 상징하는 언어 상징

어떤 교육심리학자는 “모든 영구적인 학습은 풍부한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말할 바 있다. <표 1>에서 [경첩의 사다리]란 비유를 통해 보여주교자 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자 교육에서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몇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실제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모든 사다리의 단을 밟아야 올라갈 수 있지만, 교육의 매체 활용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다리를 오른다는 비유는 하나하나 오를수록 어려움이 더해 간다는 인상을 주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사다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굳이 있다면, 노동자교육 단위에서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떤 언어적인 상징을 이용하는 것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언급된 어떤 활동들보다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 사다리에서 보여주교자 하는 것은, 노동자의 교육에 있어서는 강의나 교재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많은 교육적인 통로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교자 하는 것이다.

<표 2>와 <표 3>의 내용은 좀 이론적이지만, 교육의 기법이나 도구들을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노동자 교육에 적합한 규칙을 정식화하는데 일조하는 것들이다.■

<표 2> 교수와 학습의 방법론

노동자 교육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주제 중심적이 아니라 학생 중심적이어야 한다.
2. 주제 구분에 관계없이 문제점 전반을 다루어야 한다.
3.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4. 학습의 기초 소양이나 기법을 체계적으로 숙지시켜야 한다.
5. 학생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심본 활용해야 한다.
6.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진행해 나간다.
7. 학생들이 서로 다르므로 학습률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8. 구체에서 추상으로 이끌어야 한다.
9. 잠재의식적인 학습의 견고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학습의 침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0. ‘사후 학습(초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1. 배운 것을 재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12. 적절한 매체, 도구와 기법을 이용해야 한다.
13. 단지 듣거나 본 것들은 행동으로 익힌 것보다 훨씬 빨리 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4. 전체 그룹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사이의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15. 실천 활동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명확한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표 3〉 노동교육 방법론의 선행조건

노동자 학습자의 최적 학습 상황	그에 따른 노동교육가의 임무
1. 학습을 원하고, 동기가 충분하며 목표가 분명할 때	교육과정 초기에 학습자들의 관심사 및 목표, 노동교육의 목적 등에 대해 토론
2. 강사를 잘 알고 있거나, 목표에 대해서 우호적일 때	학습자들을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활동이나 생활에 대해 알아봄
3. 학습자들이 성인이자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고 있을 때	시작부터 바로 친근하며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을 것; 유쾌한 인사, 원형 또는 반원형 좌석배치 등, 학습을 상호 관계 속에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 등
4. 주제와 학습 방법 등을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할 때	모든 예와 삽화, 연습이 학생들의 기존 지식과 관련있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세심하게 다룰 것
5. 학습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존 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자주 토론을 배치할 것. 특히 추상적이거나 우회적인 주제로 돌아갈 때
6. 논리적으로나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정보와 개념들을 발견할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짜고,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며, 질문과 설명을 위해 휴식 시간을 적절히 이용할 것
7.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토론할 수 있도록 허용될 때	강사가 질문을 유도하거나 해답을 분석해 내는 능력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는 것보다 학생에게 가지 있다는 것을 상기할 것
8. 능동적이며 의식적인 목표를 가지고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직접적인 실천, 역할극, 가상 연습은 주의해서 제한적으로 활용
9. 배운대로 실천할 수 있고, 반복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을 때	연습, 질문, 퀴즈, 등을 이용하되 경쟁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10.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때	협력적인 그룹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킬 것